

## 검빛의 미학

최병소展 2020. 11. 26~2. 27 아라리오갤러리

‘긋’은 기역(ㄱ: 하늘), 으(ㅡ: 땅), 시읏(ㅅ: 사람)으로 이뤄진 글씨다. 다석 류영모는 하늘이 땅을 그리워 내리찍자 사람이 솟았다고, 그 글씨 형상을 뜻말로 풀었다. 무극(無極), 태극(太極)의 ‘극(極)’이 또한 그 ‘긋’이다. 긋은 끝없고 한이 없어서 빈탕(無極)이다. ‘긋기’는 그러므로 빈탕의 수행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선을 채워서 비우는

지운다. 무엇을? 문자를. 지운다. 무엇을? 사건을. 지운다. 무엇을? 현실을. 지운다. 무엇을? 어제를. 지운다. 무엇을? 시간을. 지운다. 무엇을? 상상을. 지운다. 무엇을? 표면을. 지운다. 무엇을? 지운 것을. 지운 자리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것은 역설이다!

최병소의 작품은 지우고 지워서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서 비우는 빈탕이다. 끝없음이다. 그는 가득가득 선을 채워서 비우는 비논리의 면목을 펼쳐냈다. 한이 없는 선들의 끝없음! 근대 서구 미학의 정론을 뒤집는 반예술의 일획이다. 우리 본래 미학의 정론을 다시 세우는 파격이다.

볼펜으로 긋고 연필로 그었다. 긋고 긋는 수천수만의 그음으로 ‘검은빛’을 드러냈다. 드러낸 그 자리를 ‘지움’으로 보는 것은 그저 하나의 시각적 관념에 불과할지 모른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시커멓게 지워진 먹먹한 어둠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검다(黑)’가 아니라 ‘검다(玄)’로 보아야 한다는 것. 먹먹에서 ‘검빛’으로 다시 읽어야 한다. 태양을 끈 자리는 먹먹이 아니라 우주 빛무리다. 빈탕의 울울창창한 검빛이다.

작가는 말한다. “신문을 지우는 형태이지만, 실은 신문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지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나를 부정하고 싶었고, 그것이 작업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한 번 그음으로 미(美)가 섰으니 그 수많은 그음은 미의 환한 숲이다. 신문의 현실이 어둡고 탁한 사건들의 서사로 가득 차 있거나,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 채 가려져 있기에 그가 긋는 ‘긋기’의 선들은 사선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해체된 이미지의 액체일 것이다. 문자와 그림이 찢기고 없는 그곳이 ‘극(極)’이라는 끝의 다함없는 검빛 바다가 아니겠는가! 위무위(爲無爲)! 즉, 함 없는 함의 저절로, 그대로. 일체의 꾸밈이 없는.

신문의 서사는 의미가 아니다. 그 어떤 신문도 의미를 앞세운 기사를 타전하지 않는다. 의미가 기사라 드센 머리가 될 때 그것은 문학이 될 뿐이다. 기자는 사실로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 신문에 보도된 사건들이 사실이 아닐 때 신문은 의미가 된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신문 속 사건들이 사실일 때도 신문은 의미가 된다. 신문이 신문다워지니까. 1975년 최병소가 신문을 작업 재료로 선택했을 때 그 신문들은 사실을 가렸고 현실을 가렸다. 정권의 검열로 기사가 통째로 사라져 여백 송송한 신문들이 허다했던 것. 신문은 신문이 아니어서 의미가 넘쳤다. 그는 그 의미를 해체해 무의미를 만들고 그 무의미로 의미의 미학을 창조했다.

그는 서사에 덧칠하기도 함으로써 ‘신문다움’의 의미를 없앴다. 신문이 신문다워지지 않을 때 신문은 무의미해진다. 조금씩 그의 ‘긋기’ 행위가 서사에 쌓이고 쌓여서 신문 표면의 글과 그림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미는 의미로 폭발했다. 하나의 선에서 시작된 파괴, 해체, 무의미, 반예술의 장면들이 삼시간에 통합으로, 의미로, 예술로 뒤바뀌면서 어떤 한계적 상황의 미학을 초월하는 것. 다함없는 끝의 자리는 표면의 붕괴였다. 창조적 빅뱅으로서.

이번 개인전에서 가장 황홀한 장면은 찢겨 나간 조각들이 압핀에 꽂혀 설치된 장면들이었다. 긋기의 빅뱅이 이뤄진 자리는 티끌로 흩어진 조각조각의 검빛 종이일 터인데, 그 조각조각들이 보여주는 검빛은 참으로 장엄했다. 무의미가 의미로, 의미가 부서져 무의미로, 그리고 그 무의미한 것들이 빚어내는 조각들은 찬란했다.

〈무제 016000〉 옷걸이  
730×430cm 2016\_《意味와  
無意味 SENS ET NON-  
SENS: Works from 1974 to  
2020》전은 최병소의 1970년대  
초기작과 최근작을 병치한다.  
한국 실험미술과 단색화 경향을  
관통하는 작가의 미술사적  
위치를 재고한다.



〈무제 0201012〉신문에 붙편, 연필 57.5×73×1cm(부분) 2020\_작가는 사회의 주류 체계를 부정하면서 신문지, 연필, 의자, 꽃 등 일상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펼쳐왔다. 대표 연작 '신문 지우기'는 탄압의 대상이었던 신문을 까맣게 지우는 저항의 몸짓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찢겨 나가는 듯한 느낌이다.”

의미와 무의미가 뒤섞여서 혼재하는 표면의 카오스모스는 그러나 작품의 본질이 아니다. 전시에 내걸린 작품은 그저 어떤 행위의 '품(品)'이며 결과일 뿐이다. 문제적 상황은 행위를 짓고 일으키는 '작(作)'으로서의 몸에 있다. 작가는 그의 작업실에서 품의 결과를 따지지 않으면서 작의 몸을 극(極)으로 몰고 간다. 몸으로 굶는 선의 '한없음(無限)'이 '끝없음(無極)'으로 솟아나는 그 극의 완전한 빈탕. 어쩌면 '끝없음'에서 그의 회화는 창조되는 것이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빈탕이 된 몸의 흔적이기도 할 것이다. 그 흔적의 있고 없음이 또한 몸의 '실재'일 것이고.

#### 긴긴 침묵의 싸움

빈탕의 몸은 부재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실재다. 아라리오갤러리 여기저기에 설치한 작품들은 마치 '무의미'라는 사건의 증거들처럼 정교하게 배치되어서 '그'라는 행위자, 발화자, 그림자를 찾게 했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왜 여기 있으면서 없는가? 작품으로 '무의미'를 따지면서 '몸/짓'의 실체는 왜 묻지 않는 것일까?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건물 외관에 플래카드로 걸린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새 두 마리의 이미지는 '그'의 실재를 뚜렷이 드러냈다. 머리도 몸도 마음도 발도 없는 '그'의 실재는 저 흰 구름과 같아서 있다가 사라졌고 다시 나타났다. 이것이 나타나니 저것이 바로 보였고, 저것이 불현듯 자취를 감추니 이것도 흔적 없었다. 무의미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삶의 현실로 내려앉으니 의미가 거품처럼 바글거렸다. '그'는 하늘인가, 구름인가, 바람인가, 새인가, 날개인가, 만남인가.

〈무제 9750000-3〉(1975)은 바닥에 흰색 테이프로 구획 지어 놓은 자리에 접이식 검은 의자 여덟 개가 나란했다. 흰 선은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솟아서 의자를 압박했다. 안으로 침범할 수 없는 물리적 힘이 작동하고 있었고,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강제력이 드셨다. '그'의 몸/짓이 안팎에서 혁혁거렸다. 1970~80년대, 맹목적인 '국민 교육'이 몸에 새겨졌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여덟 개의 의자가 마주 보는 자리에 따로따로인 의자 넷이 있다. '나란히'를 뒤틀어서 따로 놓인 그 의자들은 자유로웠다. 각각의 자리가 다 독립이었다. 의자 없이 빈자리로 구획된 두 개의 공간은 시원했다. 아무것도 없이 부재한 그 자리가 실재였다. 가득가득해서 그 빈자리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실존이었다. 이 의자들의 상황을 공중에 매달린 액자 속 두 마리 새가 가만히 엿보고 있다.

실존은 보이는 구체성 너머에 있을지 모른다. '무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주체로서의 '그'는 '최병소'라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 너머의 한 존재가 '굿기'의 몸/짓을 쏟아 넣어서 검빛의 물성으로 해체된 자리에 '그'가 있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그'는 없이 있는 미의 실존일 것이다. “무슨 성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지워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신문이 불편을 만나고 연필을 만나서 신문이 아닌 다른 물질로 성불한다고 할까?”

몸/짓은 행위로 남지 않는다. 몸/짓은 행위로 흩어질 뿐이다. 몸/짓이 투명하게 빈탕으로 흩어질 때만이 무의미는 싱싱하게 살아 오른다. 신문은 온데간데없고, 꽃은 온데간데없고, 흰 옷걸이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미'라는 이름의 풀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여, 그의 작품을 단색화로 쉽게 재단하거나,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 Ponty)의 '의미와 무의미' 개념에 간단없이 구속하는 따위의 비평을 나는 거부한다. 퐁티의 책 『의미와 무의미』조차도 그에겐 그저 무의미의 해체를 위한 몸/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퐁티는 하나의 단초였을 뿐이다. 이 세계의 단면을 알아차리기 위한 작은 촉발로서 말이다. 그 촉발이 일으킨 불안간의 깨달음 이후, 그의 세계는 오롯이 '최병소'라는 발화자와의 긴긴 침묵의 싸움이였다.

45년, 부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술한 말들은 침묵이 일으키는 작은 파동에 불과했다. 말없이 세계와 맞섰다. 최병소 또한 45년을 말 지움의 무의미로 맞섰다. 말은 때때로 거짓이었고 폭력이었으며 구속이었다. 검빛으로 채워서 비우는 그의 작업은 빈탕으로 맞서는 저항이었다. 묵묵의 소리였고 외침이었다.

/ 김 종 길